

시대분별_Timing Ⅲ.

공동체를 모르는 개인적 신앙은 믿음 성장의 한계점에 반드시 봉착합니다.

1. '하나됨'을 추구하는 영성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에하드'(하나)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한다. 모든 피조물은 저절로 혼자 생겨난 것이 아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존재의 근본과 뿌리가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 그래서 기독교의 창조적 세계관은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이다. 혼돈과 불확실성에 근거하지 않고 확실한 진리위에 기초한다. 기독교 영성은 성경에 기록된 '창조'를 믿는 영성이다. 영성이란, 보이지않는 영의 원리(하나님의 뜻)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적용된 상태를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에하드)은 물리적 '하나'를 넘어선 의미이다. 하나됨의 모양보다는 하나됨의 상태를 말한다. 에하드의 표본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세 분이 다르시지만 '한분' 이시다. 즉, 세 분이 이루었던 '하나됨'의 상태가 본질인 것이다. 기독교는 눈으로 '증명' 할 수 있는 '사실' 위에 근거한다. '진리'를 믿는다. 진리란 무엇인가? 변함이 없는 가치를 말한다. 그래서 진리는 '절대적'이다. '기준'이 된다. 예수님도 진리를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라는 수식어를 붙이셨다. '확실하다. 명확하다' 는 것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정말로, 진실로' 하나된 상태를 말한다. 진짜 '하나'라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한 곳에 모여있는 상태, 같은 공통점이 있는 상태가 '하나됨'의 상태라 말할 수 있겠는가? 고린도 교회를 보라. 그들은 고린도 교회라는 한 교회에 있었지만 '분리'된 상태였다.

[고린도전서 1:11-13]

11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글로에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2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한다고 합니다.

13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형제'로 부른다. 형제는 무엇인가? 아버지가 같은 사람을 말한다. 하나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파로 나뉘어져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에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라고 말한다. 한 몸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라질 수 있느냐는 말이다. 다시말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다.

한 집에 산다고 해서 '하나'인가? 한 스물에 모였다고 해서 '하나'인가? 조이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하나'인가? 아니다.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생각만 하고 있다면 하나가 아닌 것이다. 고린도 교회를 보라. 자기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가 옳다고 말한다. 자기가 믿고 주장하는 바는 옳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한 고린도 교인들은 잘못되었다. 성경이 어디에 더 중요한 방점을 두고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2. 자기신앙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는 무엇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 믿음의 확신대로 사는 사람이다. 내가 믿는 확신의 뿌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고린도 교회에 있던 분리된 성도의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주장하는 바는 옳게 여기지만, 내 뜻이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뜻'에 정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ㄱ. 야망 : 하나님의 뜻에 반한 자기 뜻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 그런데 먹었다. 바로 이 상태가 야망이다.

ㄴ. 비전 :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된 상태

부르신 분의 뜻을 내 뜻으로 여기고 있는 상태를 ‘소명’이라 한다. 대표적인 예가 달란트 비유이다. 주님의 명령을 내 뜻처럼 여기고 움직이는 삶이 소명의 삶이다. 사명이라 말하기도 한다. 부르신 분의 뜻에 응답하는 삶을 말한다.

[빌립보서 3:14]

꽃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믿음 생활의 한계점은 ‘자기신앙’에 근거했을 때 나타난다. 자기소원을 성취하려는 신앙은 반드시 한계점이 나타난다. 제대로 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말한다.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사는 삶이다.

3. 세속적 하나됨 -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기의 뜻을 성취하려는 인위적인 하나됨

(1) 바벨탑

바벨탑은 세속적 하나됨의 좋은 예이다. 하나됨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됨의 모양에 집중한다.

[창세기 11:1-4]

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흠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ㄱ. 바벨탑의 뿌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이 목적이다. (4절)

ㄴ. 바벨탑의 하나됨은 표면적 하나됨만을 추구한다. (언어가 하나, 말이 하나,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

- 획일화, 규격화된 하나됨이다.

- 말과 언어가 달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진정한 ‘하나’라고 말한다. 하나됨의 상태를 말한다.

- 벽돌로 돌을 대신하자(3절) : 하나님의 제단은 각기 모양이 다른 돌을 쌓아 올렸다. 그러나 바벨탑은 자연적인 돌이 아니라 인위적 단계의 공정을 거친 벽돌로 쌓아 올렸다. 바벨탑은 다른 모양, 다른 크기를 찾아볼 수 없다.

(2) 인간이 도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미래의 하나됨의 위험성 - 기능화 된 인간

바벨탑의 핵심은 무엇인가? 획일적 인간이다. 획일화를 가장 잘 볼수 있는 곳이 공장이다. 하나됨의 모양만을 말한다. 하나를 이루고 있는 모든 개인의 다양성과 개성이 모두 죽어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 (부속품화 되는 인간, 기계화 되는 인간) 강제적 하나됨이다. 조직적 하나됨이다. 이런 구조의 뿌리는 두려움이다.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 형태에 맞추라는 것이다. 기능이 없는 인간은 쓸모없다. 쓸모있는 인간은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인간이다. 부속품이 쓸모가 없으면 버리듯이 버려질까, 도태되어질까 두려워 한다.

인간의 모든 관심사는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 오로지 ‘기능’만을 극대화 시킨다. 그래야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간이 되고, 조직에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능을 높이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괜찮다. 남을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데 미래를 보라. 미래는 기계가 인간의 모든 기능을 대신해준다고 말한다. ‘기능없는 인간’이 갈 곳은 어디인가? 주목해야 할 것은 기능없는 인간이 나 혼자라면 불안할 것이다. 이 때는 기계가 인간의 모든 것을 대신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기능이 없다. 그래서 불안하지 않다. 그래서 인간은 ‘초기능’을 꿈꾼다. 그 상태가 바로 ‘신의 기능, 능력’에 도전하는 것이다. 영생에 도전할 것이다. 하나님 없는 천국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계시록에 기록된 천국의 모양처럼 눈물과 근심과 질병이 없는 완전한 천국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다.

4. 성경의 하나됨은 답이 아니라 '몸'이다.

하나님의 뜻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임했다. 개인의 부르심은 공동체(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견된 각 개인의 소명이 다. 부르심과 소명의 본질은 같다. 모양만 다를 뿐이다. 이것이 바로 '몸'의 상태이다. 각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모양과 기능은 다르지만, 모든 지체가 머리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른다.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과 기능이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가 몸이다. 이것이 영적인 상태이며, 자유의 상태이며, 진정한 에하드의 상태이다.

[에베소서 4:1-5]

-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 5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에베소서 4:11-16]

- 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 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 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ㄱ. 부르심에 합당한 몸 (1절) : 그리스도의 몸은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몸이다.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뜻을 행하는 것이다.

ㄴ. 부르심과 소명은 같다. (4절) : 너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ㄷ. 하나된 몸의 상태는 성숙하다

: 서로 다른데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게 하는 사랑의 본질로 성숙해져 있기 때문이다(2절). 겸손, 온유, 오래참음, 사랑, 서로 용납, 평안의 매는 줄, 하나됨을 힘써 지키려는 자세.

ㄹ. 획일적 몸이 아니다. 하나 되었지만 모든 지체의 각기 다른 기능이 존중된 상태. (11절)

: 진정한 하나된 몸을 이룰 때 나타나는 것은 그 몸을 이룬 모든 지체들의 기능이 살아난다는 것이다.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양성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해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상태를 말한다.

ㅁ. 모든 지체의 기능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최적의 상태가 된다.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12절)

ㅂ. 성숙함 (13, 15, 16절)

: 성숙함이란 무엇인가? 결국 그리스도에게 까지 자라나는 것이다.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 상태이다. 성숙한 상태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상태이다. 성숙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사랑이다. (15, 16절)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될 수 있다. 성숙한 상태의 몸이 바로 16절의 몸이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가는 몸을 말한다. 이 상태가 '성숙함'이다.

하늘의 능력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에 임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되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동체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 초대교회는 그 예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이 서로 사랑했다. 그 속에서 초대교회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져 갔다. 왜냐하면 서로를 살피고 돌보았기 때문이다. 이기적인 나만을 보고 있는 이유는 미성숙함에 근거한다. 미성숙함이란 '자신'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5. 자기가 부인된 성숙함.

성숙함이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성품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처음이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자기부인의 훈련이 어디에서 가장 강력하겠는가? 공동체이다.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되기를 거절하는 죄성의 자아를 반드시 다루어야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

성숙함이 주는 아름다움과 가치와 기쁨이 있다. 자기를 부인하는 일은 자아성찰의 훈련과는 다르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다. 주님처럼 생각하고, 보고, 듣고, 느낀다는 것. 더 나아가서 그 분에게 임했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와 교회는 이 땅에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다. 이 땅에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셨다. 예수님의 능력이 활성화된 예수님의 몸은 성숙한 몸이었다. 그 성숙함 안에서 능력이 컨트롤 되었다. 하나됨을 이름으로서 나타나는 성숙함! 이제는 이 성숙함 안에 있는 능력의 실체가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한다.